

金屬彫作品 實驗 研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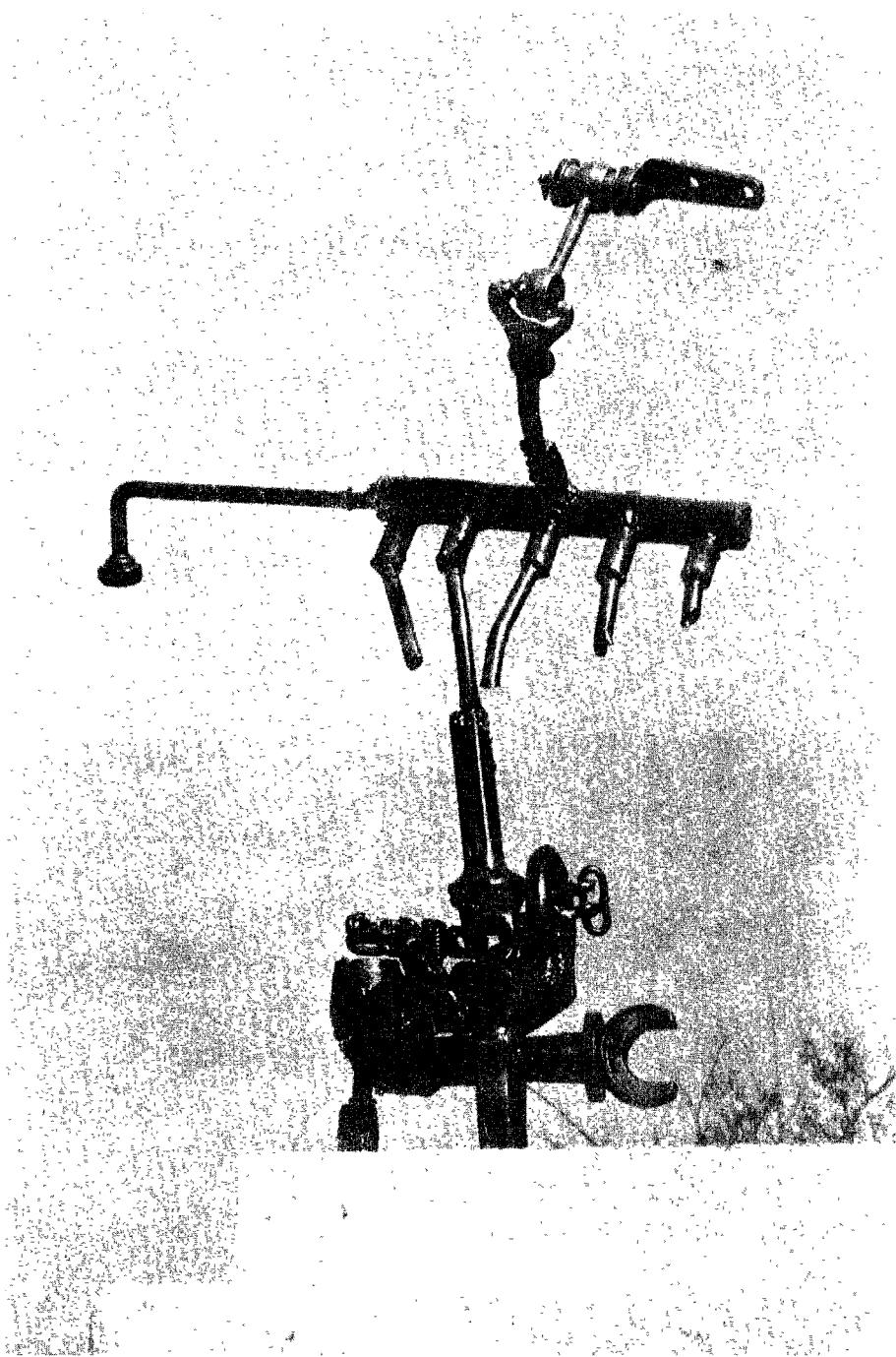
(A. 鐵材集合空間作品研究)

教授 崔 義 淳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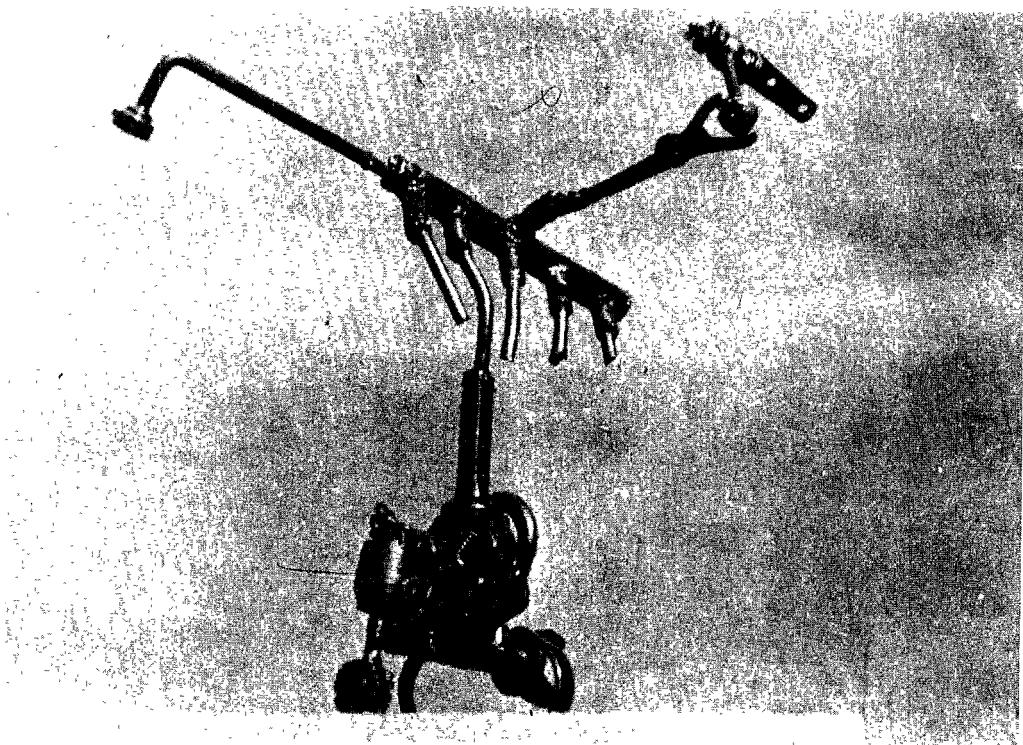
A. 鐵材集合空間作品研究

鐵材集合空間作品의 形成과정은 造形의 핵심인 空間이나 量의 構成的인 集約이 어느 이미지를 담는 경우 또는 그 自體의 抽象의이며 物質의인 發言으로써 그 形象이 日常生活中에 담고 있든 내용을 변질시키는 경우가 있다. 이러한形象은 抽象彫刻의 한 分野로서 構成的인 彫刻이면서 오브제(Objet)의인 超現實主義의인 내용을 담고 있다. 이 作品들은 素材를 無限히 活用하며 生命이 物體內에 스며들게 하며 自發의인 想像力으로 物體의 觀察성과 日常의인 効用이나 意味를 떠나 物體의 다른 측면을 展開하고 있다. 現代彫刻의 복합적인 여러 要素中의 하나로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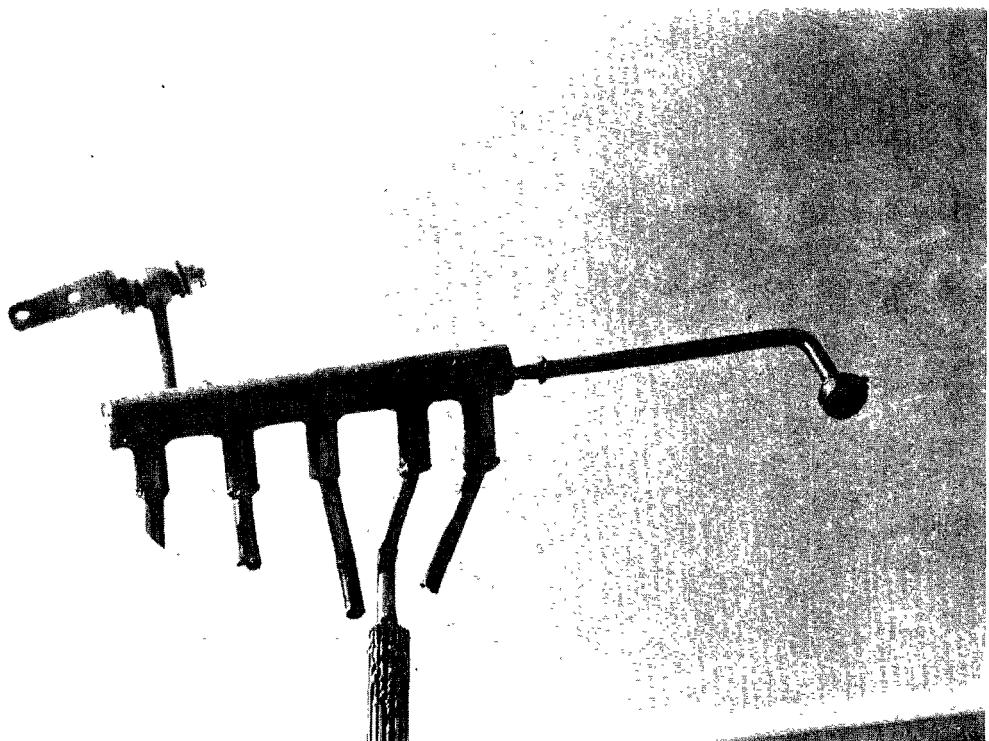
物意的인 表現의 한 斷面을 表出하고 있고, 物體 하나하나가 갖는 환상의하면서 現實性에 密着하며 이의 集合은 第三의 構成的인 効果로써 이미지의 多樣化를 가져온다. 이러한 관점은 客觀的인 여러 物體相互間에 形成하는 이미지를 승화하며 그 物體自體나 이의 集約으로써 예술의 한 分野로써의 作品世界를 展開하는데 가치가 있으며 기대되는 점이라 하겠다. 한걸음더나가 鐵材만으로써가 아니라 多樣한 素材나 形體, 또는 視覺的 非物質的 또는 自然의 變化, 成長, 空間의이며 時間의인 側面에서 폭넓게 추구할 수 있는 길을 닦는데 큰 기대를 갖일 수 있는 것이다. 이점이 바로 集合空間이 갖는 作品形成의 領域이라 하겠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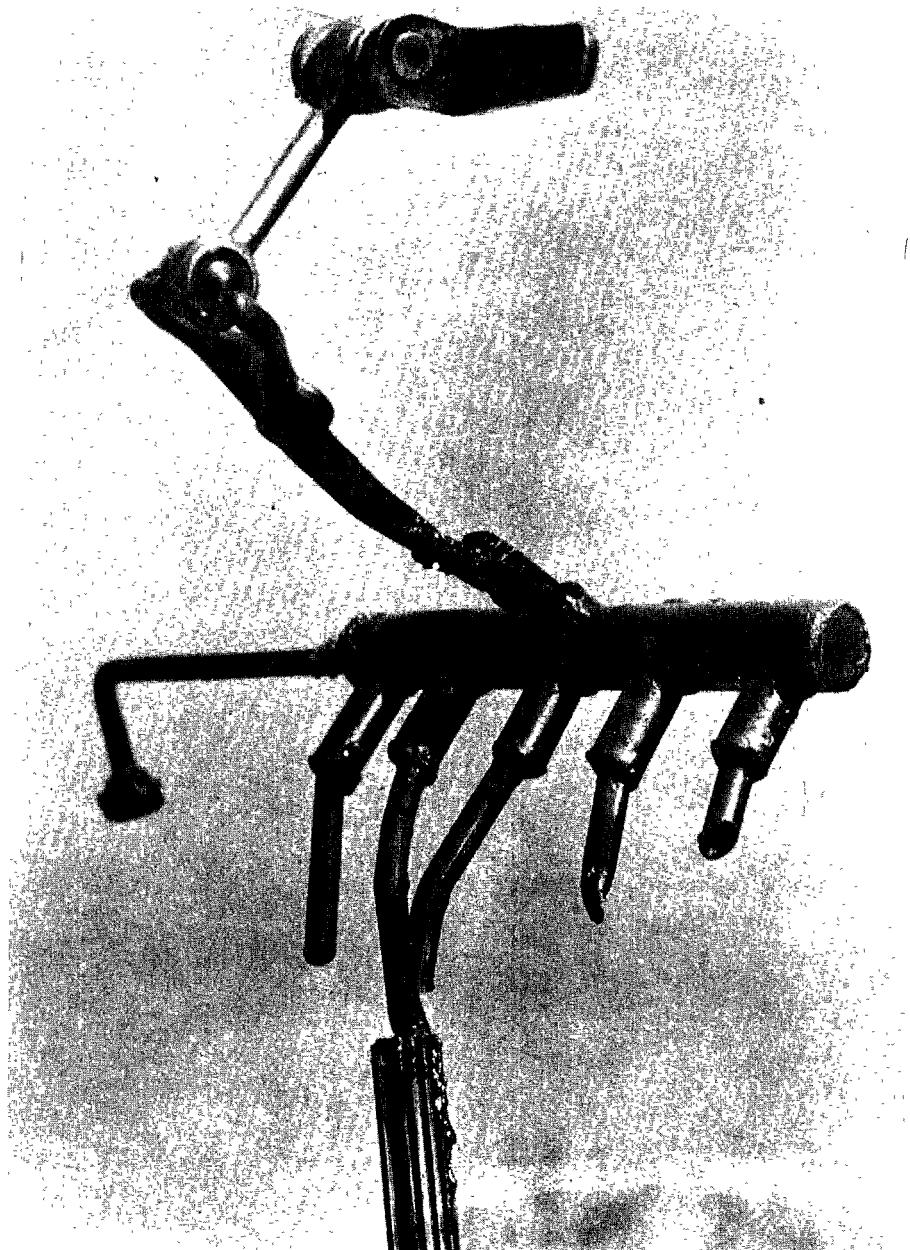
作品 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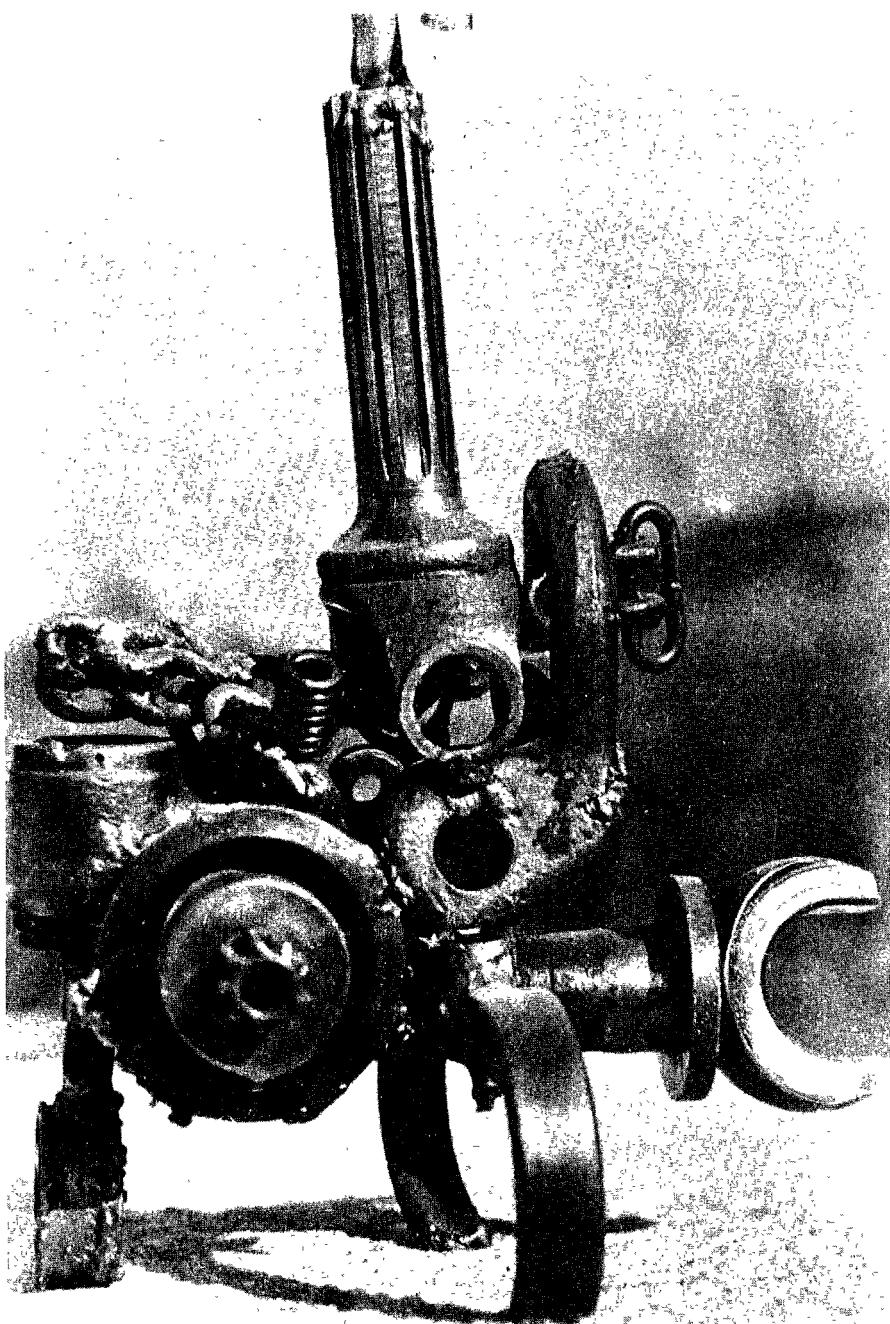
作品 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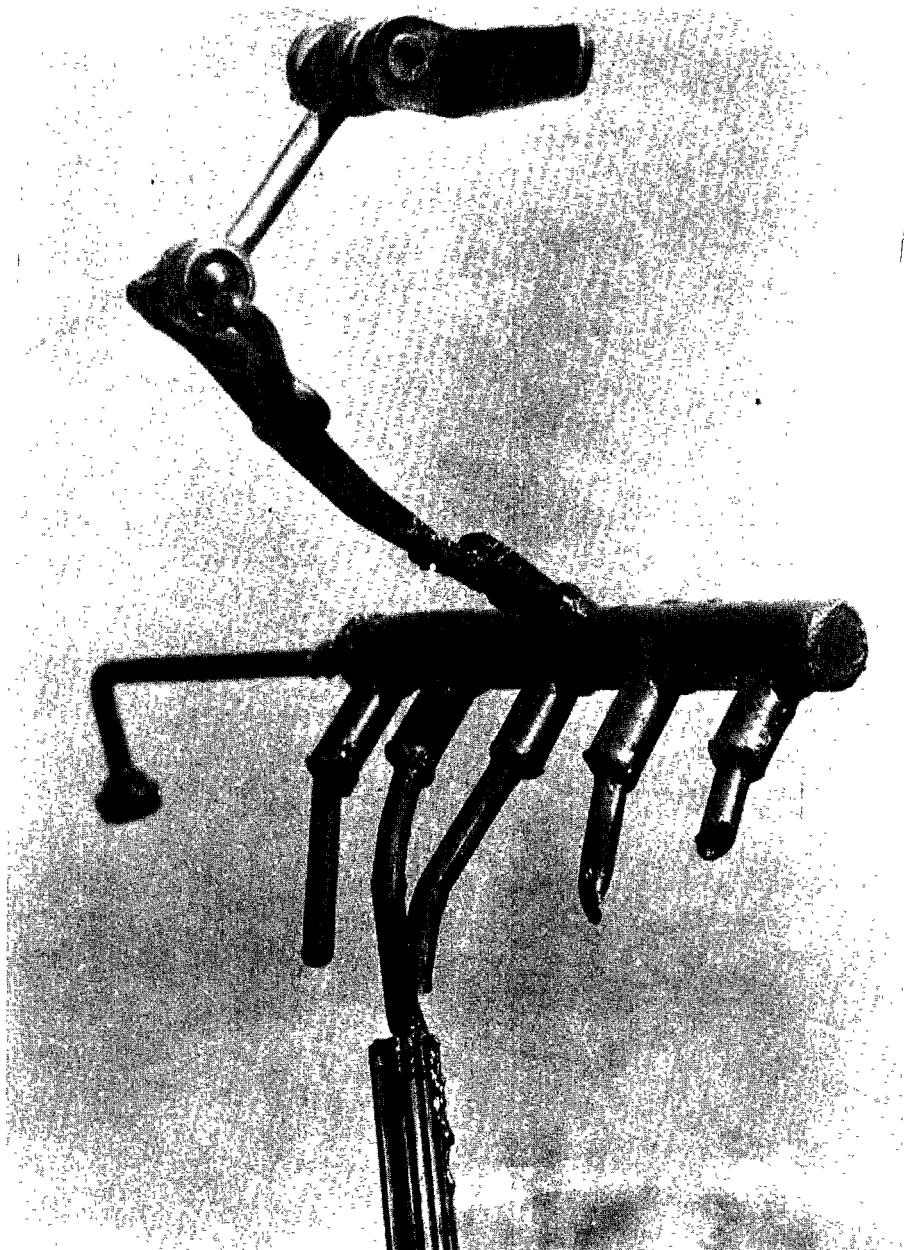
作品 1의 부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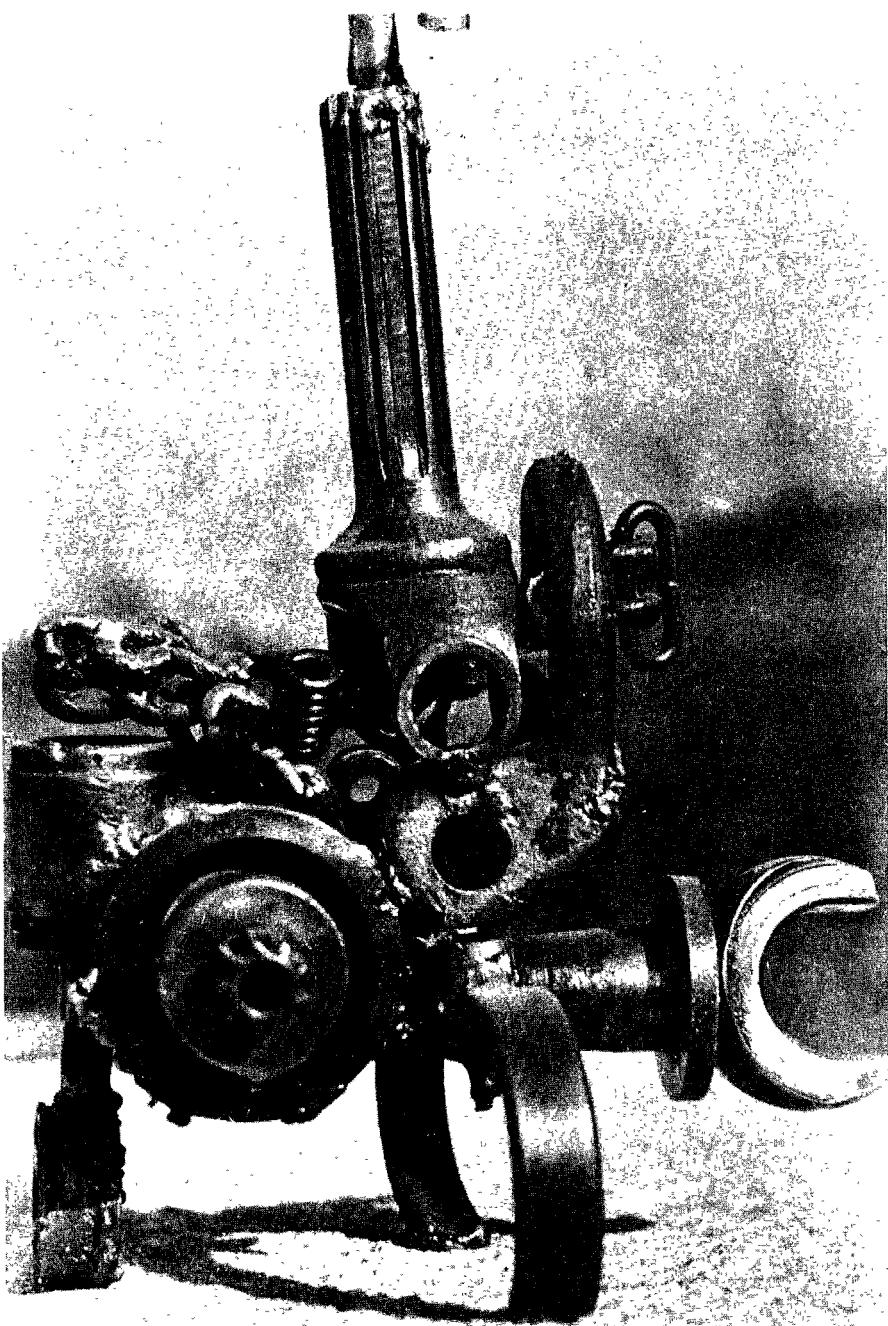
作品 1의 부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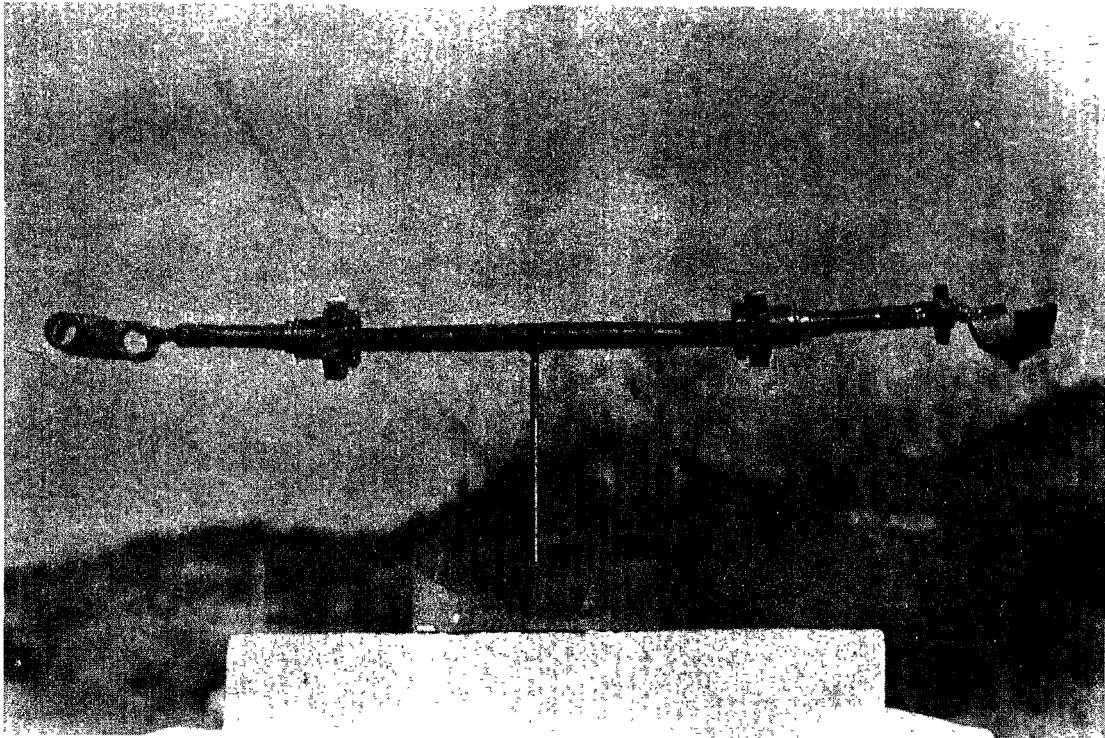
作品 1의 부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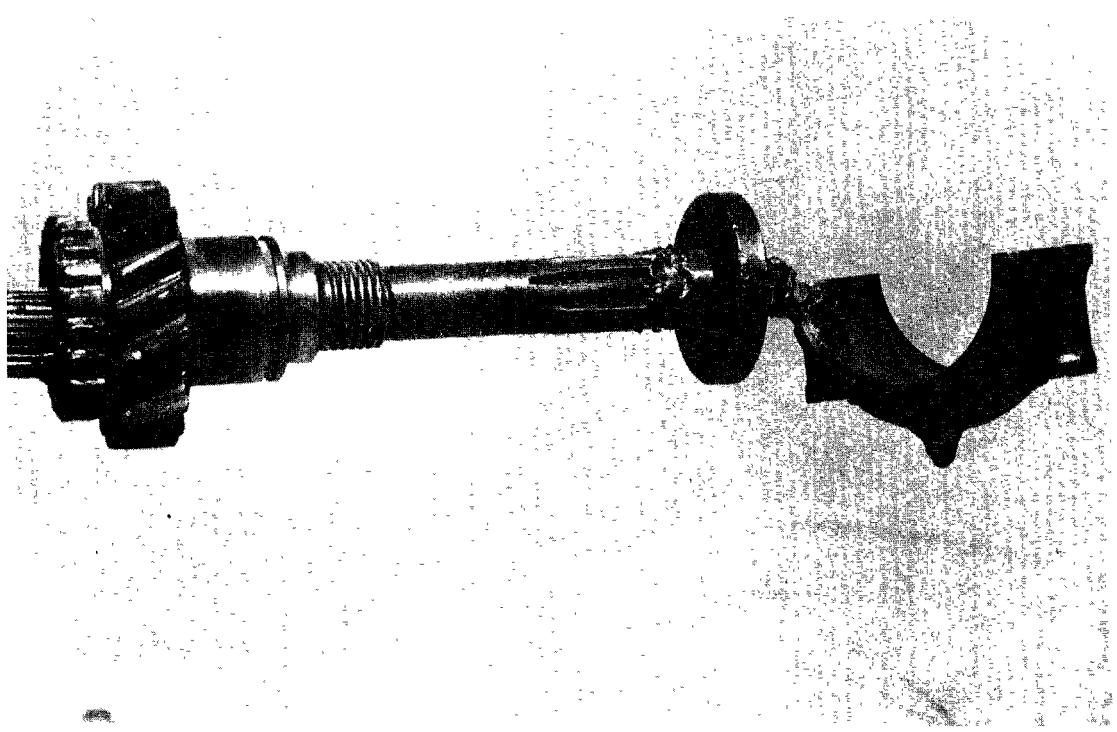
作品 1의 부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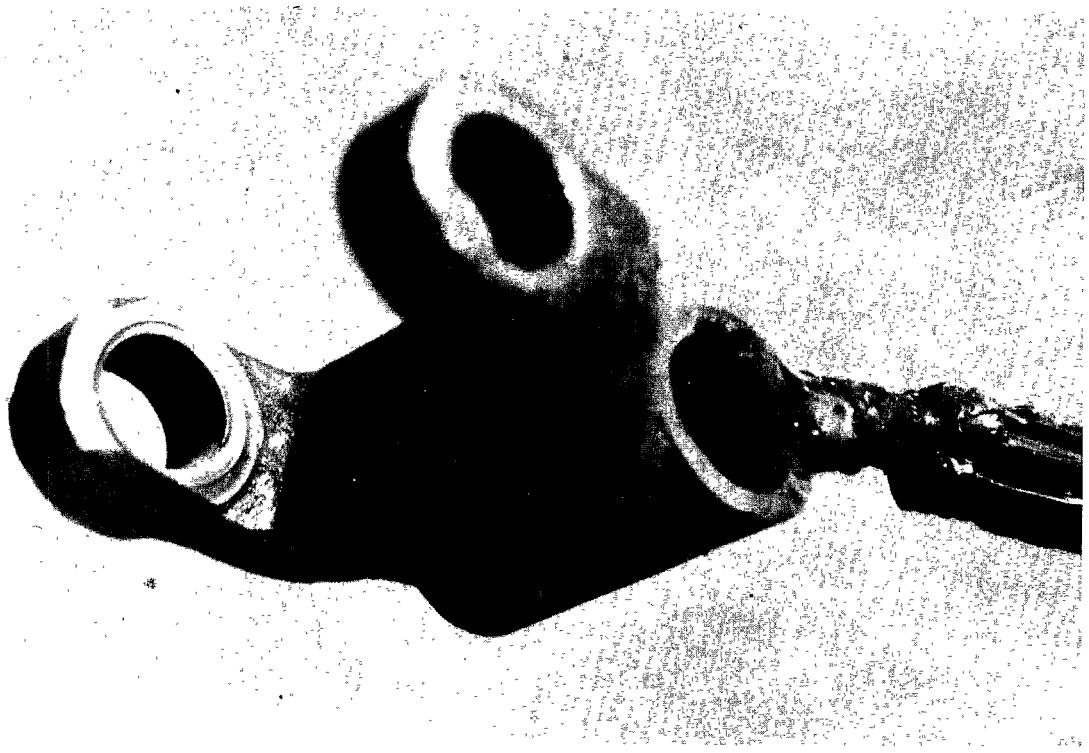
作品 1의 부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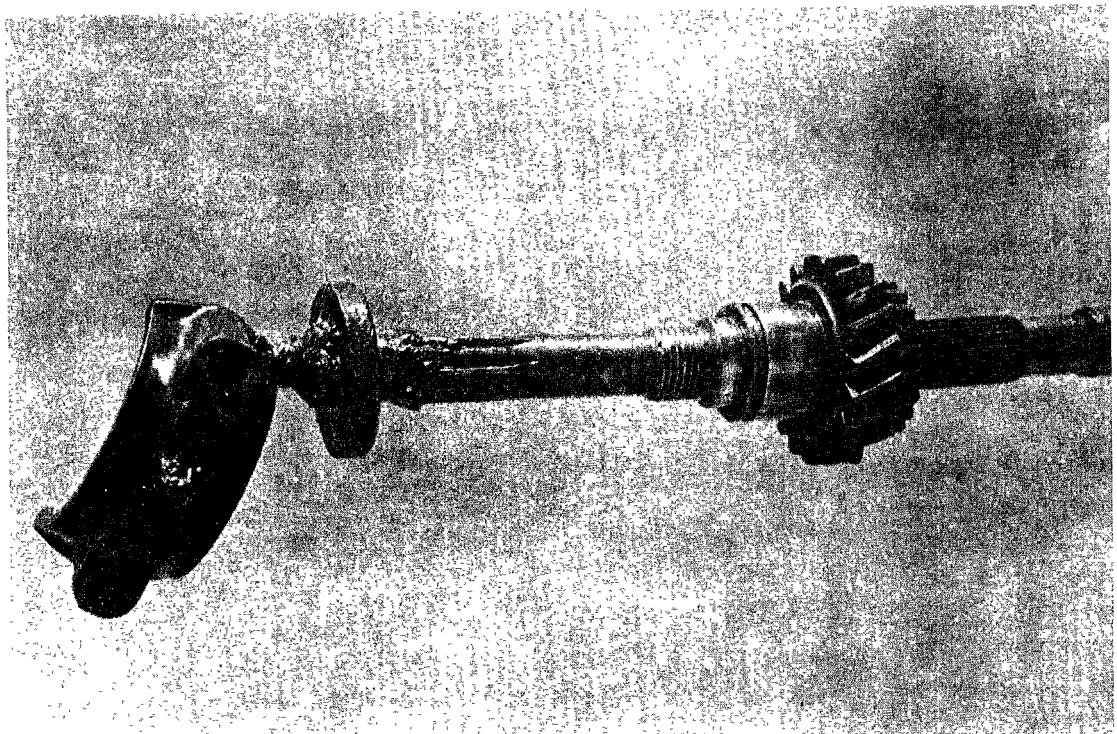
作品 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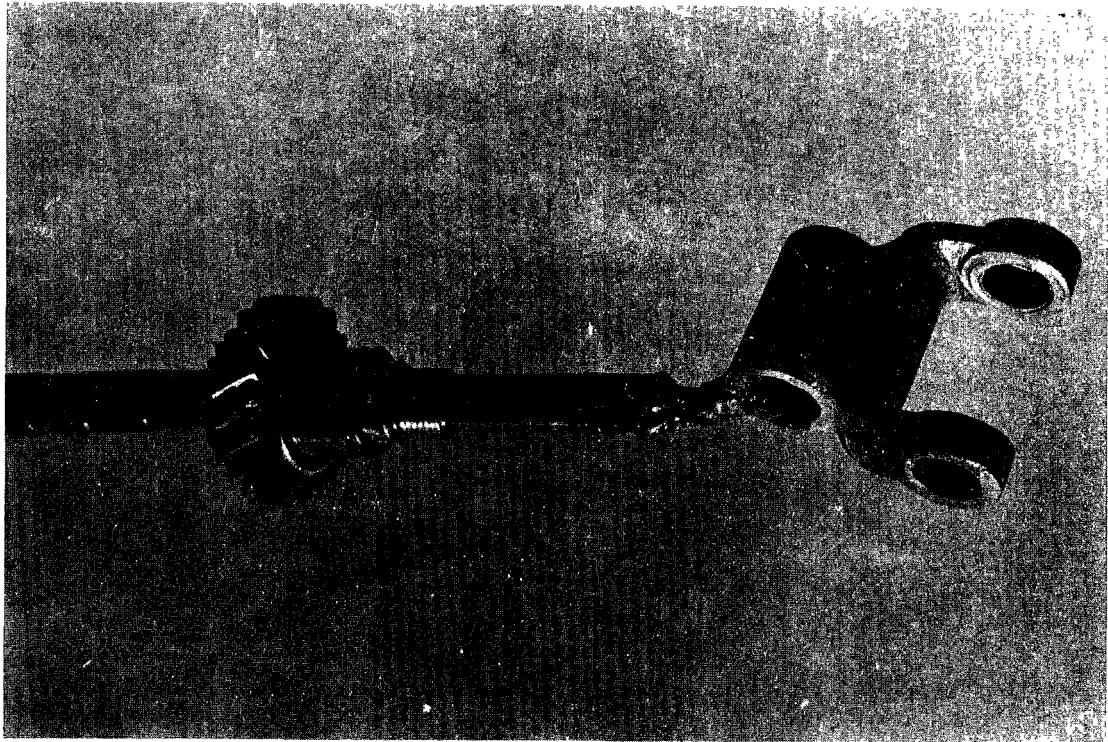
作品 2의 부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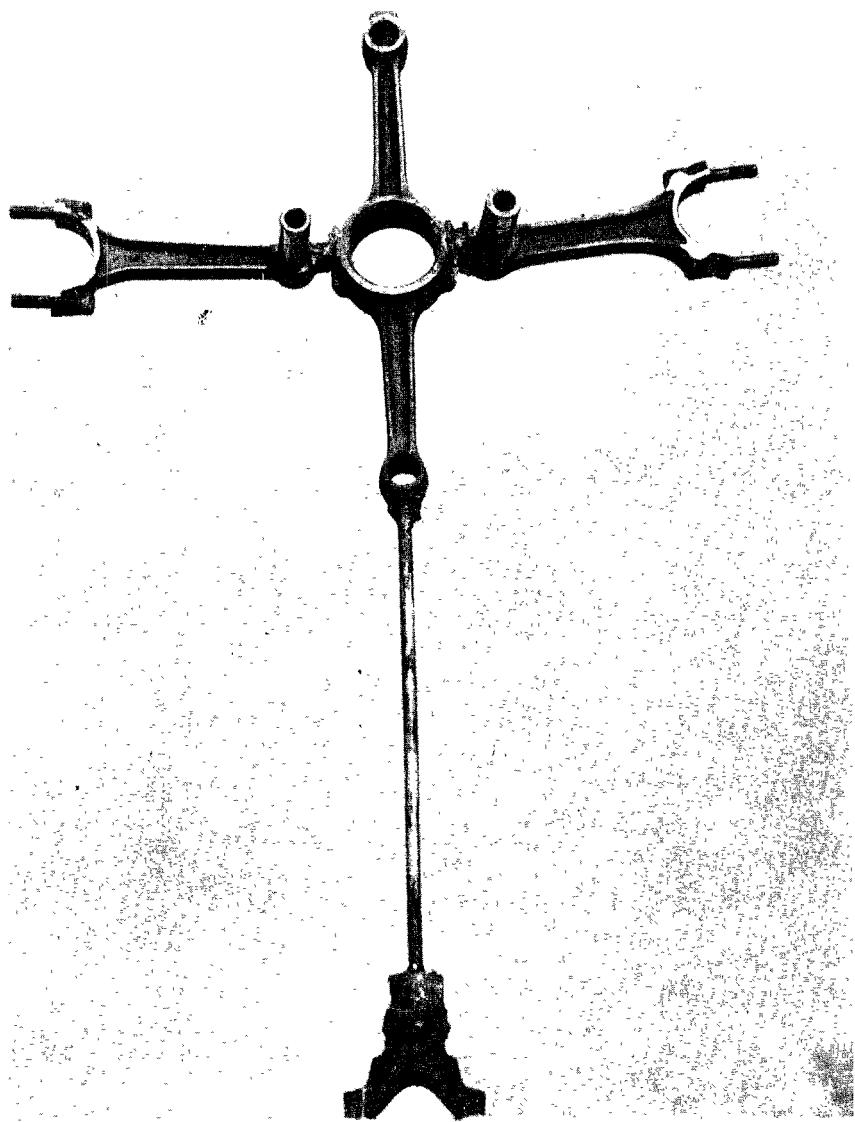
作品 2의 부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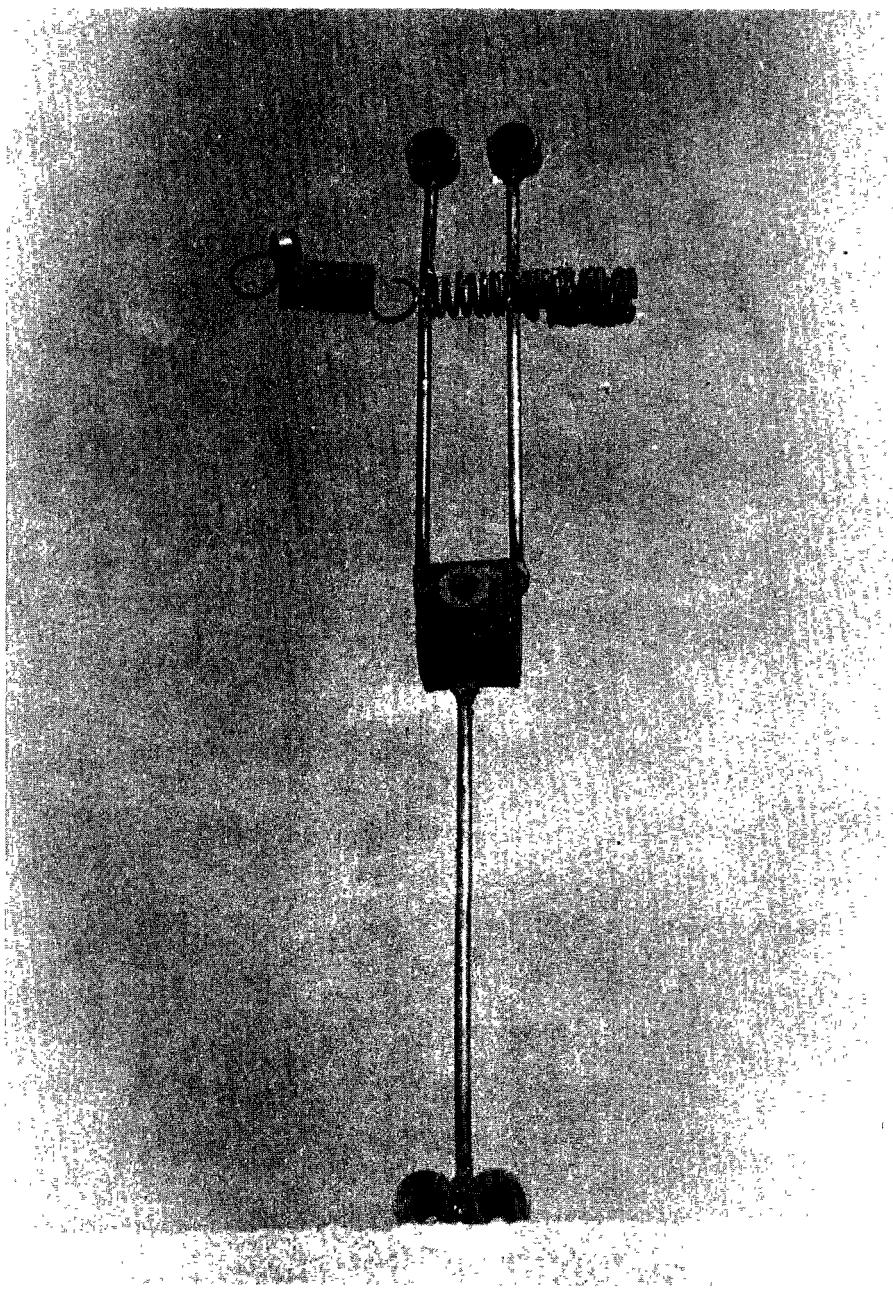
作品 2의 부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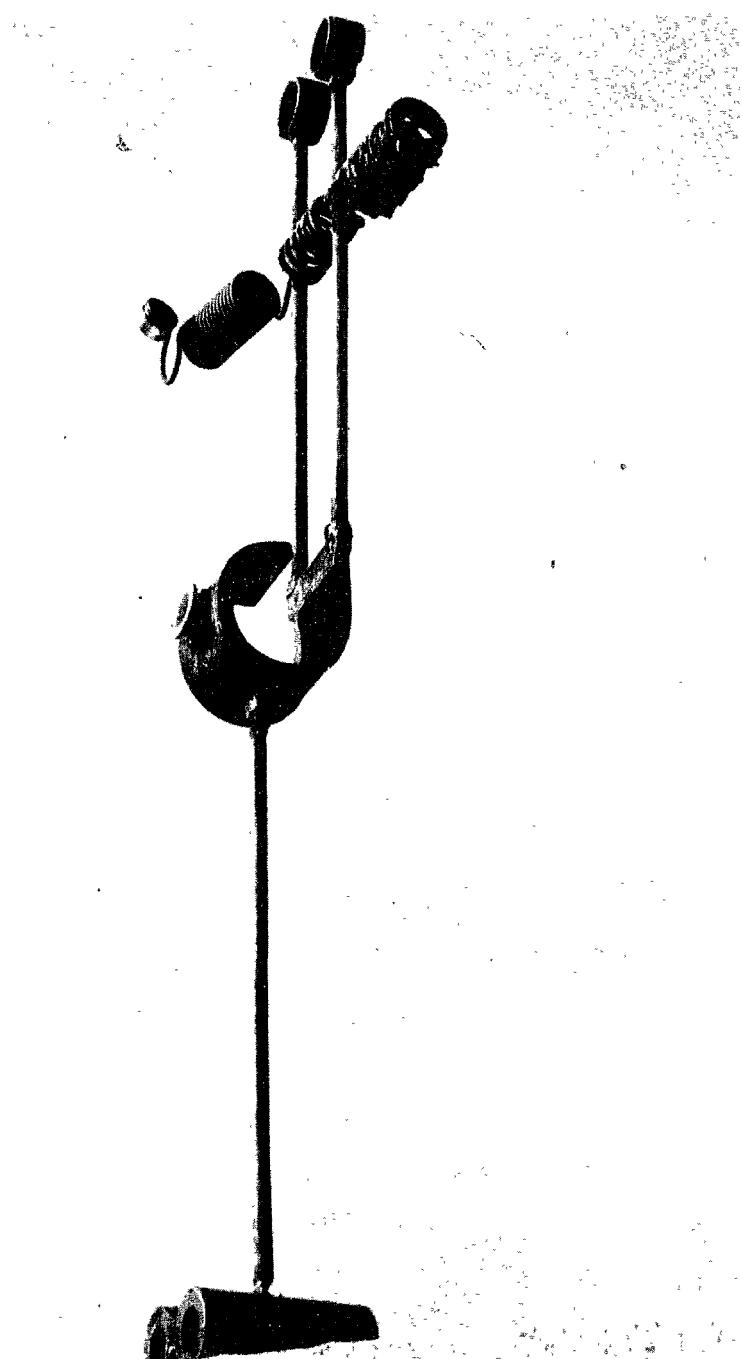
作品 2의 부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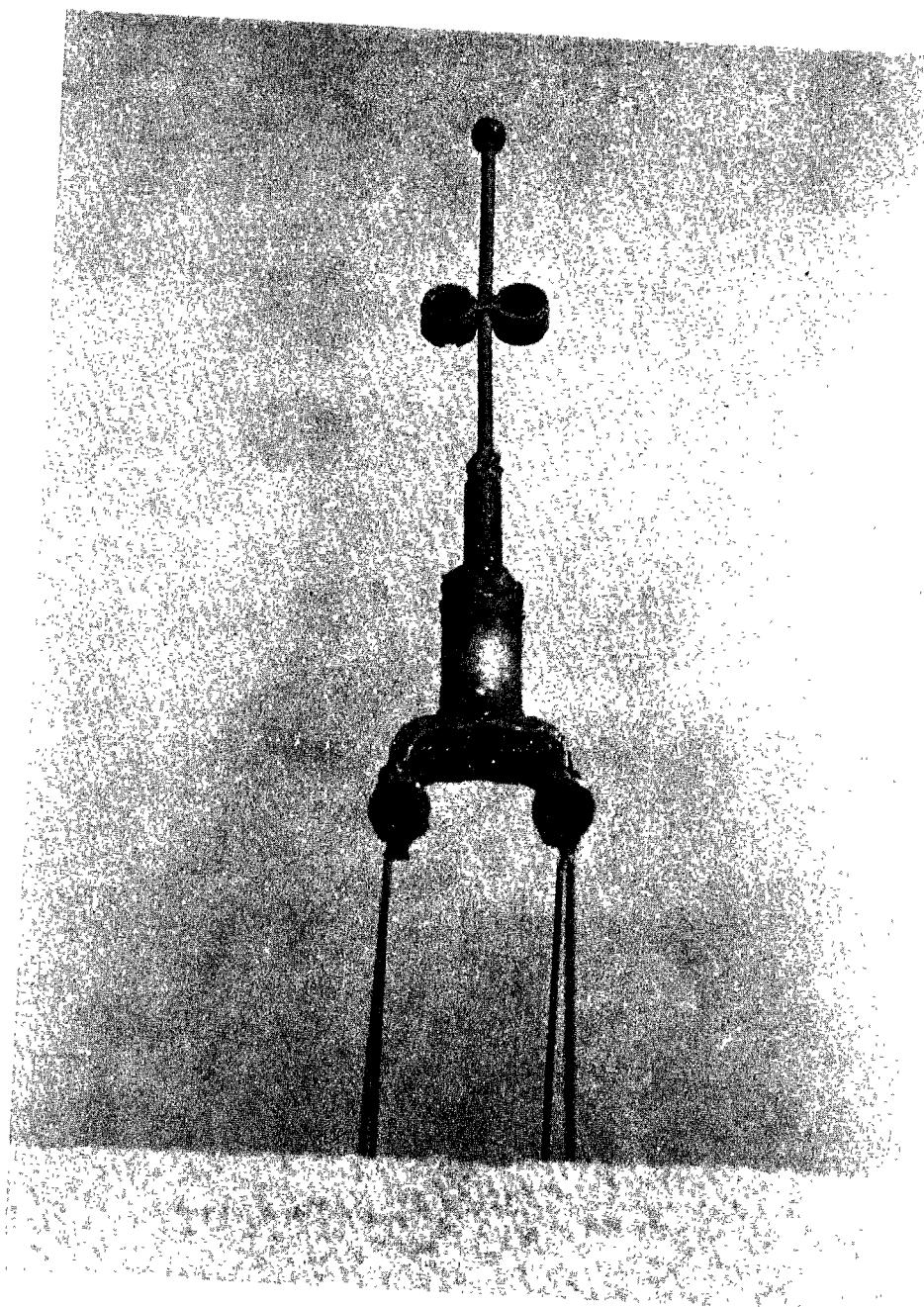
作品 3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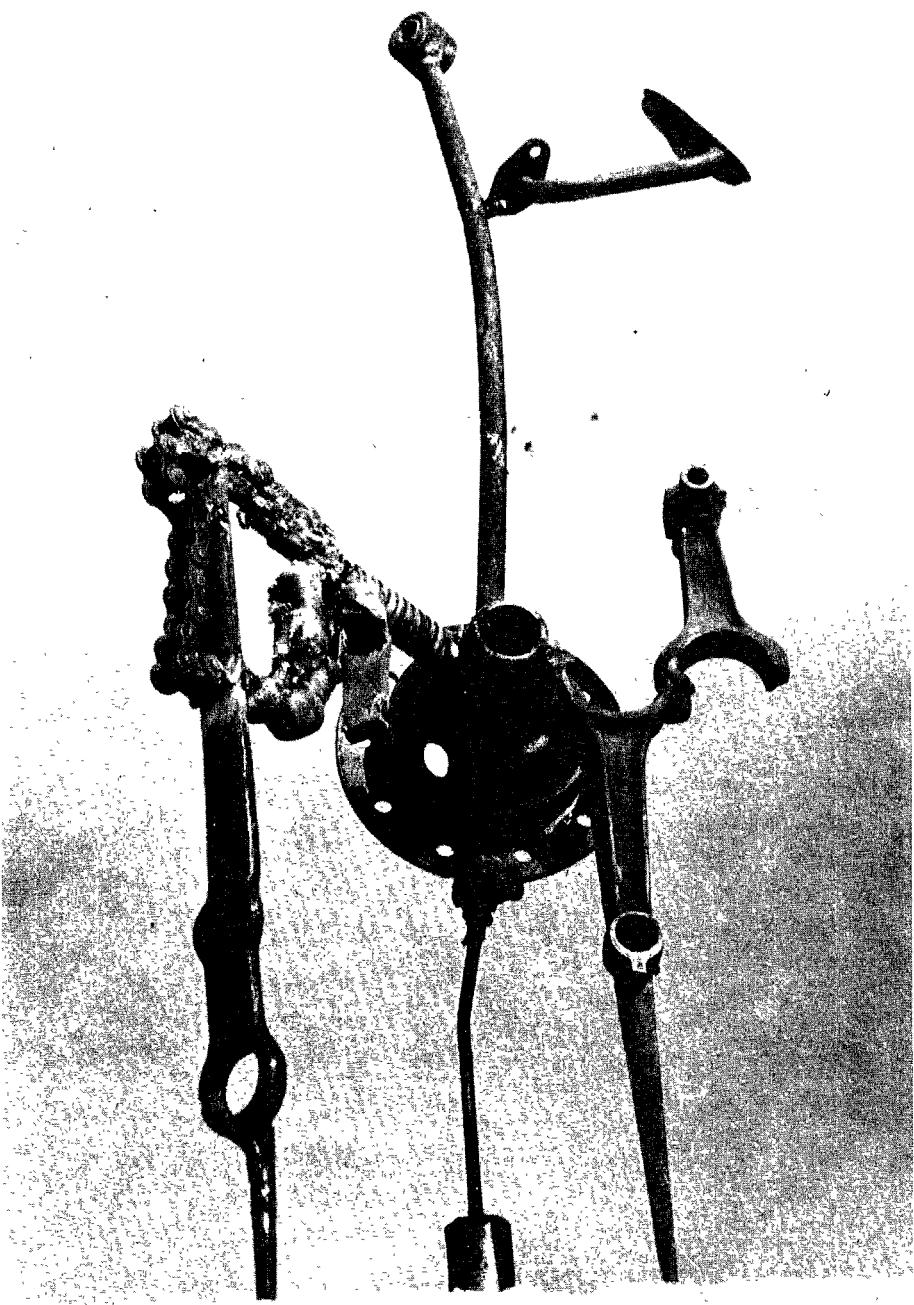
作品 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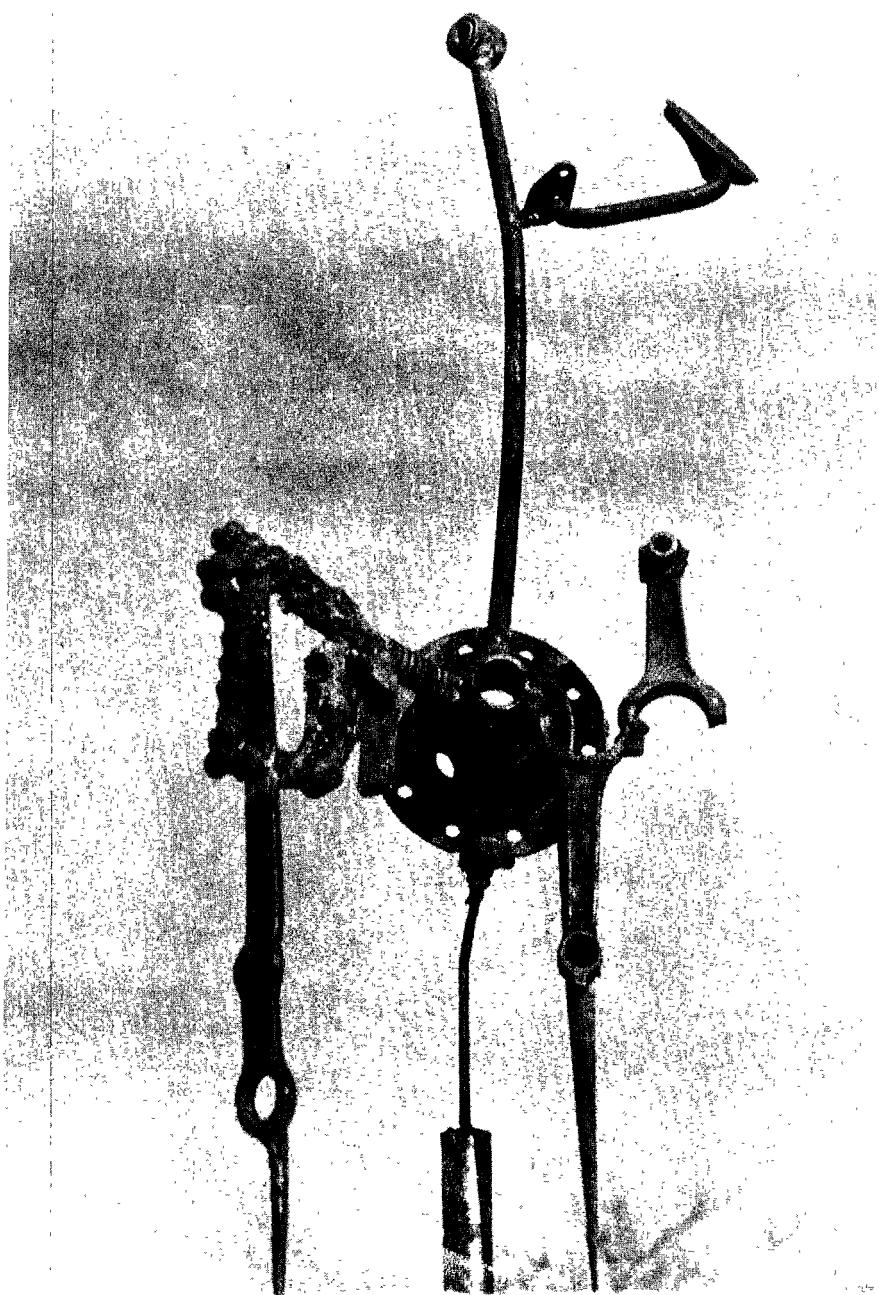
作品 4의 축면부



作品 5



作品 5



作品 5